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5. 10. 31
해외동향부 (제 7290)

■ **주요 뉴스: 美中, 무역전쟁 '휴전' 합의. 미국의 관세 인하에 중국은 희토류 통제 유예 약속**

○ Meta, AI 투자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

○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정책금리 동결. 물가는 안정적이고 경기는 점차 회복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현행 정책 유지. 신중하게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정상회담에도 무역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평가 등이 영향**
주가 하락[-1.0%],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전일 연준 파월 의장의 12월 금리인하 미확정 발언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내 추가 금리인하 관측 후퇴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28.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0.4원, 0.2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0/30일	10/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22.3	6,890.6	-0.99%
	유럽	574.83	575.40	-0.10%
	중국	3,986.9	4,016.3	-0.73%
	일본	51,326	51,308	+0.04%
	한국	4,086.9	4,081.2	+0.14%
환율	달러지수	99.51	99.22	+0.29%
	유로화	1.1565	1.1601	-0.31%
	엔화	154.13	152.73	-0.91%
	위안화	7.1104	7.0985	-0.17%
	원화	1,426.5	1,431.7	+0.36%

		10/30일	10/29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4.10%	4.08%	+2bp
	독일	2.64%	2.62%	+2bp
	영국	4.42%	4.39%	+3bp
CDS 5y	한국	22bp	22bp	-0bp
	중국	40bp	42bp	-2bp
위험지표	EMBI+	-	272	-
	VIX	16.91	16.92	-0.06%
원자재	WTI유	60.57	60.48	+0.15%
	구리	510.4	526.4	-3.03%
	금	4,024.5	3,930.1	+2.4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美中, 무역전쟁 '휴전' 합의. 미국의 관세 인하에 중국은 희토류 통제 유예 약속**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개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對中 관세를 10%p 인하하기로 결정. 이에 중국産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하락(57%→47%)할 전망. 중국의 미국産 대두 구매도 즉시 재개될 방침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양국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상호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 다만 신화통신의 발표에는 중국의 미국産 대두 수입 재개 및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등의 내용은 불포함

○ 한편,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톤의 미국産 대두를 수입하고, 금년에는 1200만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 또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도 함께할 수 있다고 언급. 중국도 이에 대해 전향적 의사 피력

○ 아울러 수출 금지 대상 중국 기업 명단 확대를 1년 간 중단하고, 양국의 무역협정 서명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10일 만료되는 美中 간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 제조업체 보조금, 최신 AI 칩 관련 조치, 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이에 시장에서는 단기 측면에서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양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여의치 않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eta, AI 투자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

○ 소셜미디어 기업 Meta는 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그러나 과도한 지출 우려 등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666.5달러, -11%). 금년 주요 빅테크의 AI 투자는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편, Goldman Sachs의 솔로몬 CEO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과도한 부채로 심판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

■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정책금리 동결. 물가는 안정적이고 경기는 점차 회복**

○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 2.0%, 리파이낸싱금리: 2.15%, 한계 대출금리: 2.4%)를 동결. 역내 물가는 중기 목표치(연율 2%) 부근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또한 노동시장과 민간기업 재무구조도 양호하다고 평가

○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현재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또한 경기 하방 압력은 완화되었다고 진단. 일부 언론은 ECB 내부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Bloomberg)

■ **유로존 3/4분기 GDP, 전기비 증가. 독일 9월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둔화**

○ 유로존 3/4분기 GDP는 전기비 0.2% 늘어, 2/4분기(0.1%)에 비해 증가세 강화. 미국發 관세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국가별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보합을 기록한 반면, 프랑스가 0.5% 증가하며 호조

○ 한편, 독일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 올라 전월(2.4%)에 비해 상승세 둔화.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ECB 평가를 뒷받침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현행 정책 유지. 신중하게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

○ 핵심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금리 운영 목표를 이전과 동일한 0.5%로 제시하고, 물가안정 목표가 대체로 달성되었다고 설명.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

○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노선을 유지하며, 금융완화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함도 유지.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으면서 회의 이후 주가는 상승하고 엔화는 약세. 한편,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 1월 금리인상을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3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및 지출.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

○ 독일 9월 소매판매,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美中 휴전, 근본적 해결책 부재 등으로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WSJ**
(U.S.-China Truce Brings Little Peace for Businesses Caught in Superpower Standoff)

○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시적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합의했지만, 미국 기업은 다음의 이유로 향후 수년 간 對中 무역과 관련하여 험난한 여정이 예상. 첫째, 평균 관세율이 하락(57%→47%)했으나 역사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둘째, 희토류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는 철회되었지만 불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이 존재

○ 셋째, 양국 간 무역 갈등의 근본 원인인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산업보조금, 기술 우위 등에 대한 논의 부재로 향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 넷째, 관세 조정에도 미국 기업의 중국 외 공급망 다각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ABC Group)

■ **연준의 통화정책, 파월 의장은 중립에 가깝지만 완화 리스크 여전 - Financial Times**
(Jay Powell thinks rates don't have far to fall)

○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0.25%p 인하하고, 연내 양적긴축을 종료한다고 결정. 그러나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파월 의장 발언이 부각되었고, 이에 채권금리가 상승. 파월 의장은 현행 통화정책이 다소 제약적이지만 거의 중립 수준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언급

○ 파월 의장은 중립 입장을 보였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융여건 완화와 자산 가격 급등 속에서 위험은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는 데 있을 가능성. 파월은 자산 가격 급등과 신용시장 불안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 위험은 없다고 평가했지만, 이러한 판단이 틀렸을 경우의 리스크도 경계할 필요

■ **연준과 ECB의 엇갈린 정책 방향, 유로화 강세 등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WSJ**
(The ECB and Fed Are Going in Different Directions. Can It Last?)

○ 최근 연준이 2회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 시장에서는 이미 ECB의 통화정책 완화 종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1회 추가 금리인하 확률도 40% 미만으로 하락(LSEG)

○ 하지만, 연초 이후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2% 올라 역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만일 연준과 ECB의 엇갈린 정책 행보가 이어진다면 유로화 강세는 더욱 심화될 소지. 이에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관세 후폭풍 등으로 ECB가 금년 12월 혹은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ING)

■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관련 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 - Financial Times**
(In the AI boom, not all capex is created equal)

○ 금년 주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큰 폭 증가했고, 해당 추세는 지속될 전망. 최근 Open AI의 반도체 및 클라우드 컴퓨팅 거래 등을 볼 때 관련 분야의 성장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관련된 위험 수준과 기대 수익에는 기업별로 차이가 존재. 이에 AI 붐이 사라질 경우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

○ AI의 위험 및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기 측면의 수요가 중요. 일례로 MicroSoft는 금년 AI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Meta는 AI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도 명확한 비젼 제시에 소극적. 10/30일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는데, 이는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의미

○ 아울러 단기간 내의 대규모 AI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특히 감가상각비 급증 등도 주의해야 할 사안. Amazon 등 최근 일부 기업은 대규모 해고를 통해 비용 증가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 이에 향후 시장에서는 AI 기업을 평가할 때 비용이 반영된 이익률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

■ **美中 정상회담, 일시적 휴전에 불과. 근본적인 마찰 원인은 상존 - Financial Times**
(A temporary truce in US-China trade tensions)

■ **미국 증시, 현 상황에서는 연준·무역·셧다운 보다 AI가 중요 - 블룸버그**
(Forget the Fed, Trade and the Shutdown. For Markets, It's All About AI)

■ **유럽계 은행, M&A 부진·달러화 약세·예금 감소·트럼프 정책 등으로 고전 - Financial Times**
(Europe's banks battle the four Ds: deals, dollars, deposits and Donald)

■ **최우선 투자 대상, 고령화 및 AI와 연관성이 높은 인프라와 의료가 부각 - Financial Times**
(The sweet spots for investors are where AI and ageing trends intersect)

■ **산업 전반에서 금보다 중요한 핵심 금속 알루미늄, 공급 제약에 직면 - 블룸버그**
(Gold? Aluminum is the real metal of the moment)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